

의미구성적인 추론의 분별은 추론주의 의미론의 의미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가?

석기용*

주제분류 언어철학, 의미론

주요어 추론, 추론 역할, 의미 합성성, 의미 불안정성, 반사실적 강건성

요약문

제리 포도(Jerry Fodor)와 어니스트 르포어(Ernest Lepore)는 추론 역할 의미론은 의미 구성적인 추론과 그렇지 않은 추론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의미 이론에게서 기대하는 의미 합성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의미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옹호하는 이병덕 교수는 윌프리드 셀라스(Wilfred Sellars)가 제안한 반사실적 강건성 개념을 이용하여 이들의 비판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반사실적 강건성 개념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신에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식임을 주장한다.

* 서강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언어 표현의 의미를 그것의 개념 역할(conceptual role)을 통해 해명하는 근본 전략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통상 표상주의 이론이라 불리는 의미 이론과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표상주의 이론은 언어를 구성하는 원초적인 단순 어휘들에 의미론적 값을 각각 할당하며 그런 개별 어휘들이 갖는 의미를 제각기 독자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원자론적이다. 예를 들어, ‘지구는 둥글다’는 문장은 우선 ‘지구’와 ‘둥글다’에 적절한 의미론적 값을 할당하고(이를테면, 지칭 대상과 외연 집합) 그런 다음 그 두 의미론적 값이 구문론적인 규칙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합성되어 세계의 어떤 사실을 표상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반면 추론주의 의미론에서는 언어 표현의 의미란 곧 그 표현이 해당 언어 체계 내에서 수행하는 추론 역할(inferential role) 혹은 개념 역할에 다름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언어 표현은 규범적인 추론 규칙들이 지배하는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일군의 사회적 실천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추론이란 문장 단위의 언어 표현들 간에 성립하는 관계이므로,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유의미성의 논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언어 표현은 문장이며 그런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적 내용이 의미의 기본 단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나 ‘둥글다’는 언어 표현의 의미는 이런 표현들을 포함하는 문장들, 이를테면 ‘지구는 둥글다’가 다른 문장들과 맺는 다양한 추론 관계들로부터 이른바 하향식(top-down)으로 주어진다.

제리 포도(Jerry Fodor)와 어니스트 르포어(Ernest Lepore)에 따르면, 이런 추론주의 의미 이론 혹은 추론 역할(혹은 개념 역할) 의미론은 우리가 적절한 의미 이론에게서 마땅히 기대하는 결정적인 요구조건을 충

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수용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¹⁾ 우리는 이들이 추론 역할 의미론을 ‘암울한 이론(a dark doctrine)’²⁾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그가 제시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일종의 귀류법적인 방식으로 구성해볼 수 있다.³⁾

- P1) 모든 언어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의 추론적 속성에 의해 구성된다.
- P2) 언어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그 표현의 추론적 속성이면, 그 표현의 모든 추론적 속성들이 의미를 구성할 것이다.
- C1) 언어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그 표현의 모든 추론적 속성들이다.
- P3) 언어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그 표현의 모든 추론적 속성들이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표현을 이용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 P4) 우리는 언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런 표현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다.
- C2) 언어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그 표현의 모든 추론적 속성들일 수 없다.
- ∴ C3) P1은 거짓이다(즉, 언어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그 표현의 추론적 속성이 아니다).⁴⁾

이 논증에서 P1은 추론 역할 의미론의 기본 주장이다. C1은 소위 추론 역할 의미론이 채택하는 의미 전체론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대표하는 로버트 브랜덤(Robert Brandom)을 비롯해 대부분의 추론 역할 의미론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다.⁵⁾ C1을 도출한 논증의 건전성에 회의적인 포도와 르포어가 비판의 열쇠로 생각하는 전체

1) Fodor & Lepore (1991, 1996, 2007).

2) Fodor & Lepore (1996) 139쪽.

3) Fodor & Lepore (1991) 14~19쪽 참조.

4) C1을 도출해내는 이 논증의 전반부는 M. Devitt (1996) 10~12쪽 참조.

5) Brandom (2000) 12~16쪽 참조.

가 P2이다. 이들은 P3으로 의미 불안정성(혹은 비(非)고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C1과 P3이 P4와는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함축하게 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언어 표현의 의미가 그것의 추론 역할로 구성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C3).

이에 대해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옹호하는 이병덕 교수는 P3과 P4를 이용해 C2를 도출하는 포도와 르포어의 추론을 거부하는 대신에,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기본 주장인 P1과 더불어 C2를 거부하지 않되, 대신 P2를 반박함으로써 그들의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논증하는 과정에서 윌프리드 셀라스(Wilfrid Sellars)가 구분한 소위 반(反)사실적으로 강건한 추론과 그렇지 않은 추론을 분별하는 전략을 결정적으로 채택한다. 나는 P2를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는 점에서 포도와 르포어에 동의하고 따라서 P2를 거부하는 이병덕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C2와 궁극적으로 C3을 도출하는 포도와 르포어의 추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불안정성의 문제는 이병덕의 방법과 같이 어떤 이론적인 장치로 해소될 수 있거나, 혹은 해소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나는 의미 불안정성의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요구되며, 이 점이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이미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먼저 포도와 르포어가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비판하는 요지가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포도와 르포어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 비판

도널드 데이비슨(Donald Davidson)은 우리가 어떤 언어에 대해서 합성적 의미론(compositional semantics)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언어에 대한 적합한 의미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⁶⁾ 합성가능성

6) Davidson (1966, 2001) 14~15쪽 참조.

(compositionality)이란 더 복잡한 표현의 유의미한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의미 이해에 기초하여 그 전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적합한 의미 이론의 요구조건으로 합성가능성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러한 합성가능성에 호소하지 않고, 이를테면 의미가 상이한 무한한 수의 문장들을 허용하는 언어라면 유한자로서의 인간의 학습 능력을 넘어선 언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합성성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이론은 기본적으로 해당 언어에 속하는 어휘들 가운데 단순한 표현들인 소위 원초적 어휘들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⁷⁾ 이런 의미에서 문장은 원초적인 언어 표현이 아니다. 그리고 원초적 어휘들로 복잡한 표현이 만들어질 때 의미의 합성에 의해서 그 복잡한 표현의 의미가 결정된다. 이런 언어에서 이론상 의미가 상이한 무한한 수의 복잡한 표현들을 구성하는 일이 가능하지만 원초적 어휘들과 적법한 합성의 규칙들은 실제 유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는데 원리적인 걸림돌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의미론적인 원초적 어휘들은 여러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를테면 합성성의 규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의미 이론으로 간주하는 진리조건 의미론에서는 지칭 어휘(referring terms), 술어(predicates), 문장 연결사(connectives), 양화사(quantifiers) 등의 범주들을 통상 도입한다. 예를 들어, ‘지구는 둥글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라는 단칭명사와 ‘둥글다’라는 술어에 각각 의미가 할당되어야 하고 이 두 어휘가 결합할 때 올바른 형식의 문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법한 구문론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진리조건 의미론에서 ‘지구’ 같은 고유명사나 ‘둥글다’ 같은 술어의 의미는 지칭 관계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확정적인 문장 형성 규칙이 주어지는 한, 이들 어휘들을 이용해서 합성한 복합 표현 즉 ‘지구는 둥글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고정적으로 결정되고 또한 이

7) Lepore & Ludwig (2007) 17~20쪽 참조.

해될 수 있다.

포도와 르포어가 추론 역할 의미론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은 추론 역할 의미론이 이러한 합성성의 기준을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 표현의 의미 현상을 설명하는 적절한 의미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미는 합성적이다.
하지만 추론 역할은 합성적이지 않다.
따라서 의미는 추론 역할이 아니다.⁸⁾

그러면 이들이 추론 역할이 합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갈색 소(brown cow)’라는 명사구의 의미를 고려해 보자. 추론 역할 의미론은 ‘갈색’과 ‘소’의 추론 역할의 합성을 통해 ‘갈색 소’의 추론 역할을 구성함으로써 ‘갈색 소’라는 표현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을까? 다음 진술들 간의 추론 관계를 비교해 보자.

- (1) 이것은 갈색 소이다.
- (2) 이것은 붉지 않은 소이다.
- (3) 이것은 갈색 동물이다.
- (4) 이것은 위험하다.

포도와 르포어에 따르면, 우리는 (1)로부터 (2)나 (3)을 추론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를 추론할 수도 있다. (1)을 근거로 (2)나 (3)을 추론하는 것은 ‘갈색’과 ‘소’의 의미가 ‘갈색 소’의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추론들은 ‘갈색 소’의 의미가 그것의 구성 요소 및 명사구를 구성하는 구문론적 구조에 의해 합성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잘 예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추론의 경우는 언어 사용자들이 ‘갈색 소’의 의미를 그것의 구성 요소의 의미 합성

8) Fodor & Lepore (1991) 16쪽.

을 통해 이해할 수만 있다면 보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반면에, (1)에서 (4)로의 추론은 경우가 다르다. 이 추론은 실제 세계에 관하여 ‘갈색 소는 위험하다’가 참이라고 믿을만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승인될 수 있다. 이 추론의 승인 여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 따라 생겨난 특별한 믿음들의 보유 여부에 따라 ‘갈색 소’의 추론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면 ‘갈색 소’의 추론 역할이란 사실상 무궁무진한 셈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갈색 소’가 이들 추론들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과연 이 표현의 구성 요소들의 추론 역할들로 합성될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것일까? 포도와 르포어는 ‘갈색’과 ‘소’가 각각 갖고 있는 추론 역할의 합성으로 ‘갈색 소’가 이들 추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의미가 합성적인 데 반해서 추론 역할은 합성적이지 않으므로, 추론 역할은 의미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물론 (1)에서 (2)나 (3)을 도출하는 추론과 (4)를 도출하는 추론의 성격을 적절한 방식으로 분별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도와 르포어는 “일단 어떤 믿음의 내용을 그것이 믿음 체계 내에서 그 믿음이 지닌 추론 역할과 동일시하고 나면, 한 믿음의 내용을 믿음 체계 내에서 그 믿음이 지닌 ‘총체적’ 추론 역할과 동일시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길을 피하기 어려울 것”⁹⁾이라고 진단한다. 한 마디로 이들은 ‘언어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그 표현의 추론적 속성이라면, 그 표현이 가지는 모든 추론적 속성들이 의미를 구성한다.’(P2)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앞 절에서 제시한 귀류법 논증의 핵심 전제에 해당한다. 추론적 속성들이 분별없이 모두 의미 구성에 가담한다고 해도 그런 추론적 속성들이 유한하기만 하다면 원리상 합성성의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언뜻 생각해봐도 그런 추론적 속성들의 수

9) Fodor & Lepore (1991) 13쪽.

가 유한할 것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경 믿음들에 따라서는 ‘갈색 소’가 ‘위험한 동물’과 적절한 추론적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는 ‘불쌍한 동물’과도, ‘신성한 동물’과도 적절한 추론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지금은 늦은 시간이다’라는 진술은 ‘당신은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와는 정반대로 ‘당신은 여기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추론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대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들까지 광의의 추론적 관계로 간주한다면 사실상 언어 표현의 추론 역할은 무한히 많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한히 많은 추론 역할 가운데 합성성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만한 수준으로 적절한 추론 역할을 따로 떼어낼 수 없다면, 즉 P2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추론 역할로 언어 표현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시도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포도와 르포어는 앞에서 보았듯이 의미 전체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사실상 P2를 거부할 길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오늘날 추론주의 의미 이론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는 철학자인 로버트 브랜덤은 실제로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전체론적 성격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¹⁰⁾

- 10) 전체론적인 성격은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론에서 다음 세 가지의 전체론의 구조적인 결합의 형태로 분해할 수 있다. 첫째는, 대체적(substitutional) 전체론으로, 단칭명사와 같은 한 표현의 용법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칭 명사들의 용법을 숙달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추론적 전체론으로 한 문장의 용법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문장들의 용법을 숙달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규범적(혹은 사회적) 전체론으로, 추론의 적절성을 지배하는 하나의 화용론적 규범의 적절성은 다른 많은 규범들의 적절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규범의 전체론이 사회적인 전체론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은 명제적 내용성이 이유를 제시하고 추궁하는 게임 속에서 결정된다는 브랜덤의 전체론적 기획에 입각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과 그것들로 구성된 문장들, 그리고 그러한 문장들 간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화용론적 규범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인 차원에서 전체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단호히 전체론적이다. 개념 내용에 대한 추론
주의적인 설명에 의하면, 누구든 많은 개념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단
하나의 개념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각 개념의 내용은 다른 개
념들과의 추론적 관계들에 의해서 명료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개념들은 묶음들로 제기되어야 한다.”¹¹⁾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한 언어 표현의 의미가 다른 표현들과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으로부터 무엇이 추론되며, 또 그것이 무
엇으로부터 추론된 것인지의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이론은 앞에서 언급한 진리조건 의미론처럼 다양한 모양과 기능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장난감 블록들을 갖고 온갖 복잡한 구조물들을 만들어낸
다는 식의 이른바 벽돌쌓기 방식 혹은 상향식의 의미 설명을 거부한
다.¹²⁾ 다시 말해서, “한 개념의 의미론적 내용은 그 개념이 갖고 있는 추
론 역할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개념의 의미론적 내용은 그 개념과
추론적으로 연관된 다른 개념들과 독립적으로 파악될 수 없다. 따라서
추론주의에 의하면 의미론적 내용은 본질적으로 전체론적이다.”¹³⁾

만약 의미에 관하여 상향식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이런 전
체론적인 방식을 채택한다면 P2의 수용으로 이어지는 귀결은 일견 당연
해 보인다.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 따르면 ‘갈색 소’의 어떤 별도의 의미
가 이 표현의 추론 역할을 제한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색 소’의
추론 역할이 이 표현의 의미론적 내용을 결정한다. 한 마디로, 추론 역할
이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절한 추론 역할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의미 요소를 미리 도입해 놓을 수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11) Brandom (2000) 15~16쪽.

12) 이런 의미에 관한 상향식 설명과 의미의 합성성 개념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
니다. 본 논고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실제로 브랜덤은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합
성성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13) 이병덕 (2004) 5쪽.

‘갈색 소’가 수행할 수 있는 추론 역할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 따르면 어떤 표현이 무엇을 지칭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그 개념과 관련된 추론들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로부터 파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런 지칭 관계 자체가 도리어 무수히 많은 추론 관계들 중에서 적절한 것들만을 속아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지칭 관계만이 아니라, (1)에서 (4)를 도출한 추론은 제쳐놓고 (2)나 (3)을 도출한 추론만을 ‘갈색 소’의 추론 역할에 한정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후자만을 ‘갈색 소’의 의미를 구성하는 추론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독립적인 의미 요소 같은 것은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출발할 때부터 이미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포도와 르포어는 이렇게 말한다.

개념 역할 의미론을 작동시키는 전형적인 방법은 따라서 분석적 추론들의 집합을 구분하고, 그것들이, 오직 그것들만이 그 안에 포함된 개념들의 구성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고양이가 동물이라는 것이 분석적이라면(하지만 오직 그럴 때만), 고양이→동물 추론이 이 개념들 중 이것 혹은 저것(혹은 둘 다?)을 구성한다.

하지만 이런 통상적인 ‘어느 추론이?’ 문제의 해결 방식은 당연히 브랜덤에게는 가용하지 않다.……분석성은 의미에 의해 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념의 내용이 분석적 추론에서 그것의 역할에 수반된다는 것은 그 개념의 추론 역할이 그것의 의미론에 수반된다는 말이 된다.¹⁴⁾

어떤 언어 표현에 수반되는 무수한 추론들 중에서 합성성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특정 추론들을 분별할 수 없고 그러므로 P2가 불가피하다는 문제 제기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 대한 또 다른 비판으로 이어진다. 바로 의미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의사소통 가능성 여부의 문제이다. 이것은 상기한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전체론적인 성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14) Fodor & Lepore (1991) 13쪽.

부각될 문제로 보인다. 의사소통은 단지 화자나 저자의 말이나 글을 청자나 독자에게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과정일 수 없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보 수신자는 송신자가 전달한 언어 표현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언어 표현들의 의미가 그것들의 추론 역할이고 또한 의미 전체론에 의거하여 어느 추론들이 개념의 의미를 구성하는 추론인지 분별할 수 없다면, 더불어 어떤 두 사람도 동일한 믿음들의 집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번역 같은 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두 사람도 결코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해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한 사람도 다른 두 시점에 걸쳐서 자신이 말하는 바에 의해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¹⁵⁾ 어떤 사람이 ‘갈색 소’의 의미로 생각하는 바는 그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들을 추가할 때마다 바뀌게 될 것이다. 적절한 의미 이론에게 기대하는 ‘언어 표현 X의 의미는 Y이다.’라는 진술 유형의 유효성은 일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며, 그런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이 나누는 의사소통이 상호간의 의미 파악을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면 아마도 의사소통은 커녕 한 개인의 일관된 사유의 가능성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브랜덤 역시 의미에 대한 전체론적인 접근이 함축하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다.

어떤 유형이건 추론주의는 특정한 의미론적 전체론에 찬동한다.…… 의미론에 대한 그런 전체론적인 개념 역할 접근 방식은 잠재적으로 믿음의 변화 및 다양한 추론의 적절성에 대한 찬동 하에서 개념 내용의 안정성과 상이한 주장과 추론을 승인하는 개인들 간의 의사소통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에 관련한 문제에 직면한다.¹⁶⁾

15) 같은 곳.

16) Brandom (2000) 29쪽.

하지만 직관적으로 우리는 사실상 의사소통을 적절히 수행해내고 있으며 성공한 의사소통과 실패한 의사소통을 어지간히 구분할 줄 안다(P4). 따라서 우리는 포도와 르포어의 비판을 통해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수용이 P4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함축하게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증을 통해 포도와 르포어는 추론 역할 의미론을 거부하는 결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문제의 요점은 이것이다. 이런 언뜻 보기에 모순적인 결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론 역할 의미론(P1)을 부정하는 대신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전제가 있을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P2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의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적절하게 개념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추론 역할과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추론 역할을 구분하는 적절한 방법을 갖고 있다면, 그럼으로써 우리가 언어 표현의 의미를 안정시킬 수만 있다면, P2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P1을 인정하는 한, 그 적절한 방법이 결코 추론 역할 이외의 다른 의미 요소에 호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반(反)사실적으로 강건한 추론과 그렇지 않은 추론의 분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병덕 교수의 제안을 검토해보자.

3. 오로지 반(反)사실적으로 강건한 추론만이 의미 구성적인가?

P2를 거부하는 방법은 하나의 개념이 관여하는 상이한 추론들에 대해서 평등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를 데비트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자면, 전체론과 원자론의 중간 단계인 의미론적인 지엽주의(semantic localism) 혹은 의미 분자론(semantic molecularism)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개념 내용을 구성하는 특권적인 추론들의 집합이 구별

될 것이고, 나머지 추론들은 그렇게 구성된 개념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식들에만 포함되는 부차적인 지위를 부여받는다. 모든 개념들이 무제한적으로 모든 개념의 의미론적 내용에 의미 구성적인 차원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부의 특권적인 의미 구성적 추론의 영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양한 유형으로 제기되어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병덕 교수는 최근 저서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와 그보다 앞서 발표한 몇몇 논문들에서 윌프리드 셀라스의 제안을 이용하여 의미 구성적 추론을 분별하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우선 다음의 추론들을 검토한다.¹⁷⁾

(5) 누군가가 버락 오바마이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다.

(6) 무언가가 개다. 따라서 그것은 지구에 존재한다.

이 추론들은 둘 다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것이 가능한, 한 마디로 타당하지 않은 논증들이다. 이병덕은 이런 추론들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반사실적으로 강건한 추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들 (5)와 (6)의 추론 관계에서 ‘버락 오바마’나 ‘개’가 수행하는 추론 역할은 이 표현들의 의미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음 추론들과 비교해보라.

(7) 누군가가 버락 오바마이다. 따라서 그는 사람이다.

(8) 무언가가 개다. 따라서 그것은 동물이다.

이병덕에 따르면, 이 추론들은 반사실적으로 강건하다. “다시 말해 위 추론의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¹⁸⁾

17) 원문에서는 추론이 문장들 간의 관계라는 점을 오해할 수 있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에 나오는 논증을 약간 수정하였다.

18) 이병덕 (2017) 237쪽.

그리고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과 달리 반사실적으로 강건한 이들 추론들은 실질적으로 타당한 추론이며, 이런 추론들에서 ‘벼락 오바마’나 ‘개’가 수행하는 추론 역할은 이 표현들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구분을 앞서 제시한 (1)~(4)의 문장들 간의 추론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1)에서 (2)나 (3)으로의 추론이 반사실적 강건성을 지닌 것인 반면 (4)로의 추론은 (1)이 참이라고 해도 반드시 (4)가 참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사실적으로 강건하지 않고, 따라서 이 후자의 추론은 ‘갈색 소’의 의미를 구성하는 추론이 아닌 것이다.

과연 반사실적 강건성 개념을 이용한 이런 불평등주의가 서두에서 제시한 귀류법적 논증의 결론을 거부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것일까?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추론들을 비교하여 논의를 정리해보자.

- (9) 갈색 소는 포유류이다. 포유류는 동물이다. 따라서 갈색 소는 동물이다.
- (10) 이것은 갈색 소이다. 따라서 이것은 동물이다.
- (11) 이것은 갈색 소이다. 따라서 이것은 승배의 대상이다.

위 추론 중 (9)는 논리적 형식에 의해서 타당한 추론이다. 이 추론의 타당성은 ‘갈색 소’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논증에서 ‘갈색 소’ 대신에 ‘에뮤’를 바꾸어 넣어도 이 논증의 논리적 타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논증의 타당성은 ‘에뮤’라는 표현의 개념 역할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아마도 기껏해야 이 단어의 구문론적 범주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에뮤’는 희귀 조류의 이름이다. 오히려 이런 형식적으로 타당한 논증이 제공하는 것은 논리적 어휘들의 추론 역할이다. 한편, (10)과 (11)은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아니다. 셀라스에서 브랜덤으로 이어지는 유형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은 이런 추론들을 실질적 추론(material inference)라고 부르고 이런 실질적인 추론들이야말로 ‘갈색 소’ 같은 비논리적인 어휘들의 추론 역할을 제공하는 것들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셀라스의 제안을 따라서 P2를 거부하기 위한 근거로서 반사실적 강건성을 지닌 추론 (10)과 그렇지 않은 추론 (11)을 구분하자는 것이 이병덕의 제안이다. (10)은 ‘갈색 소’의 추론 역할과 사용 규칙에 관여하는 의미 구성적인 추론이다. 반면, (11)은 힌두교에 대한 부수 정보를 믿음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는 승인될 수 있는 추론이지만 어떤 가능한 세계에서는 갈색 소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갈색 소’의 의미 구성에 관여하는 추론이 아니다.

이 제안은 수용할만한 것인가? 이 제안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반사실적 강건성의 개념이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근본 틀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을 위배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추론 역할 의미론이 전체론적인 성격을 띠는 사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떤 언어 표현이건 그것이 표현하는 개념의 의미론적 내용과 사용 규칙은 다른 개념들과의 추론적 관계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전제 하에서 어떤 개념의 추론 역할과 관련된다고 여길 수 있는 무수한 추론들을 반사실적으로 강건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 개념이 미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의미 요소에 호소할 수 없다. 아직 그 개념의 의미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2절에서 분석성 개념에 호소하여 지엽주의를 옹호하는 방식이 왜 실패하는지 포도와 르포어의 논증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다. 포도와 르포어가 ‘어느 추론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분석적 추론일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분석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론 역할이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의미를 이미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반사실적 강건성 개념은 어떠한가? 이 개념은 이러한 모종의 순환성을 일으키지 않고 적절하게 의미 구성적인 추론을 분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병덕은 반사실적 강건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능세계 개념에 호소한다.¹⁹⁾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동물이 아닌 것은 개가 아니기 때문에 (8)은 반사실적으로 강건한 추론이지만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아닌 세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5)는 반사실적으로 강건한 추론이 아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런 구분이 ‘개’, ‘동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어휘들에 미리 주어진 의미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실제로 이병덕은 (7)과 (8)은 의미와 관련된 추론으로서 ‘버락 오바마’의 의미 속에 사람임이 내포로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⁰⁾ 이러한 의미의 반사실적 강건성 개념은 언어 표현의 의미론적 내용이란 그것의 추론 역할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하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근본 전제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당 개념에 미리 부여된 의미 요소에 호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개념의 추론 관계가 반사실적 강건성이라는 성질을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를테면 경험적으로 그런 구분이 가능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세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므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더군다나 이병덕 교수 본인도 다음 두 논증을 비교하며 이점에 관해 언급한다.²¹⁾

(12) 래시는 개다. 따라서 래시는 동물이다.

(13) 래시가 개면 래시는 동물이다. 래시는 개다. 따라서 래시는 동물이다.

그는 (13)의 추론과는 달리 (12)의 추론은 경험적으로 논박될 수 있는 가

19) 이병덕 (2017) 256~263쪽. 특히 이병덕 교수는 지금의 이 논의를 통해서 실제로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크립키나 퍼트남의 양상논증이 성립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한다.

20) 같은 책 237쪽.

21) 같은 책 247쪽.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예컨대 우리가 ‘개’라고 불러왔던 것들이 지구인을 감시하기 위해 외계인이 보낸 스파이 로봇이라는 충격적인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우리는 더 이상 개들을 동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12)의 타당성을 부인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12)와 관련된 타당성은……개들을 동물로 분류해야 한다는 개념적 분류와 관련된 실질적 타당성이다.²²⁾

반사실적 강건성 개념이 미리 주어진 의미 요소에 호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즉 추론 역할 의미론의 기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8)이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반사실적으로 강건한 추론임에도 불구하고 (12)는 경험적으로 논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정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이병덕 교수의 불평등주의 노선이 P2를 거부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어떤 개념에 연루된 모든 추론들 중 일부 추론들만을 의미 구성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의미론적 지엽주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대안들을 검토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다만 어떤 분별의 기준을 제시하여 의미 구성적인 추론들만을 슈아내려 하더라도 그것이 추론 역할 의미론의 전체적인 기획에 부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그런 구분을 제시하여 어떤 실질적 추론은 의미 구성적인 추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의미 비(非)구성적 추론의 구체적인 성격 및 추론 역할 의미론 내에서의 그것의 지위가 무엇이란 말인가? 단지 의미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칠 뿐 의미를 구성하는 추론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소위 의미 전체론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2) 같은 책 248쪽. 원문의 (8)을 (12)로 바꾸었음.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의미론적인 내용은 화용론적인 유의미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한 마디로 의미론이 화용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사실상 이것이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핵심이며, 또한 포도와 르포어의 비판이 겨냥하고 있는 표적이기도 하다). 즉, 언어 게임의 참가자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보증되고 귀속되는 규범적 상태와 태도를 상호간에 점검해 가면서 그러한 의사소통에서 발화된 언어적 실행의 의미론적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정적인 추론들의 특별한 부분집합(이를테면 반사실적으로 강건한 추론들)을 숙달하는 것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충분조건이 되지 못할 것이다.’²³⁾ 대화를 나누던 중에 상대방이 “별써 시간이 이렇게 늦었군요.”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방에서 나가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의 의미는 이해했지만 다만 상대방 화자의 의도를 못 알아챈 것이라고 말해야 할까? 그것이 아니라 그는 사실상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브랜덤에게 의미론적인 내용이란 언어 게임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결정되는 현재 진행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되는 셈이며, 이것이 추론 역할 의미론이 전체론적인 성격을 띠고 말할 때 그 의미에 가장 철저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서 반사실적 강건성을 갖는 의미 구성적인 추론들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혹은 다른 어떤 기준으로 의미 구성적인 추론들을 따로 분류하는 것은) 별다른 의의를 갖지 못한다. 브랜덤에 따르면, 결국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당면한 언어 게임 속에서 “개념 구성적 추론들을 구별하는 특권들을 어떻게 해석하던지 간에 이 특권적 추론들의 승인은 여전히 관점에 따라 다를 수”²⁴⁾ 있기 때문이다.

23) Brandom (1994) 635쪽.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의 것임.

24) 같은 곳.

4. 엔트로피의 감소 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

만약 P2를 수용한다면 그것이 함축하는 바가 무엇일까? 앞서의 논의들에서 의미의 불안정성과 의미 합성성 기준 충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P3이 도출된다는 것이 포도와 르포어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 전제가 P4와 일으키는 충돌이 추론 역할 의미론을 거부하는 귀류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번 절에서 P2를 수용하면서 이 결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 이를 위해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브랜덤이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미 불안정성 개념과 합성성 기준의 충족 문제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흔히 이야기되는 통상적인 견해는 정보 송신자가 전달한 매개체인 언어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수신자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의사소통의 송신자와 수신자는 해당 언어 표현의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공유된 의미 이해라는 이 통상적인 견해를 받아들여 보면, 모든 언어 표현과 의미에 대해서 ‘언어 표현 X의 의미는 Y이다’라는 간명한 도식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의미가 안정적이라면, 그런 의미의 합성을 설명하기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추론 역할 의미론과 의미 전체론을 고수하면서 언어 표현 사용자가 보유한 부수 믿음들이 모두 개념의 추론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정확히 동일한 믿음 집합을 보유한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한(사실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사소통을 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브랜덤에 따르면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란 이런 것이 아니다. 의사소통의 성공은 한 사람(정보 송신자) 마음속에 있는 안정적인 불변의

의미 같은 것을 말이나 글 같은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수신자)에게 정확히 옮겨 놓는 데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브랜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무도회에 참석하여 각자 다른 동작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춤을 완성하고 있는 한 쌍의 노련한 댄서들이 빚어내는 결과물과 같은 것이다.

의사소통의 당사자들은 퍼레이드에 참가한 군인들처럼 발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아니라 각자가 상이한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춤을 공유하고 있는 볼룸 댄서들로 그려져야 한다. 여기서 공유된 춤이란 그들의 개별적인 상이한 동작들의 조율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²⁵⁾

의사소통은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함께 무언가 정합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이 춤의 비유를 더 활용하자면 성공적인 의사소통일수록 마주보고 춤을 추는 노련한 파트너들이 마치 한 사람이 춤을 추는 것처럼 일사불란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며, 댄스 경연 대회에서 1등이 아니라 모두 꼴등인 것은 아닌 것처럼 의사소통 역시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판정 대상이 아니라 더 성공적인 것과 덜 성공적인 것이 있어서 정도의 차이로 평가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브랜덤은 이런 멋진 볼룸 댄스의 비유를 좀 더 명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문장이 표현하는 주장의 내용이 건주어 평가될 필요가 있는 부수적인 찬동(믿음)들의 집합에 차이가 존재하는 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문장은 그 동일한 문장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의미하는 바와는 다른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의사소통의 경우라 할지라도 만약 당신이 내가 말한 바를 이해하고 싶다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입에서 내가 발화한 그 문장이 내 입에서 표현하는 주장을 표현하는 문장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이해를 위해서 그것은(당신이 내가 내 자신에게 찬동하는 바가

25) Wanderer (2008) 152쪽에서 재인용.

무엇인지 아는 것) 당신이 그 주장이 연루되어 있는 추론들을 추적할 수 있음을 수반한다.²⁶⁾

이런 의사소통 모형에 따르면, 의사소통에 참여한 대화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말이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사용된 표현들(개념들)의 추론 역할들을 다각도로 추적해 나가야 한다. 정보 송신자인 상대방의 발언 S에 대해서 수신자인 나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믿음들을 기반으로 추론 관계들을 추적해야 하고 동시에 S에 대해서 내 나름의 믿음들을 기반으로 추론 관계들을 설정하여 S의 추론 역할을 규명해 나가야 한다. S의 의미는 이런 상호적인 과정 속에서 과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S의 의미는 S의 추론 역할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라는 추론 역할 의미 이론의 성격에 부합하는 의사소통 모형인 셈이다.

이는 사회학의 의사소통 이론 중에서 로저스와 킨케이드(Rogers & Kincaid)의 의사소통의 수렴 모형(Convergence model of communication)이 제안하는 바와 매우 유사하다.²⁷⁾ 물론 이 모형은 의미 이론의 일부로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소통과 상호 이해의 정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논의에서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의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해 준다. 이 수렴 모형은 “의사소통을 의견 수렴의 역동적 과정으로 보고 소통이 일어나는 사회적 조직은 일정한 패턴을 가진 정보의 흐름으로 상호 연결된 개인들의 네트워크로 본다. 개인들은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 제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만 상호 이해 과정에서 처음의 차이점들은 역동적인 되먹임 과정을 통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정보 교환에 잠재해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개인들 사이의 차이점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일부는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상호

26) Brandom (1994) 510쪽.

27) 이성범 (2015) 26~35쪽 참조.

이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런 목표 지점에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대화 참가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련의 주기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본다.”²⁸⁾ 이런 수렴의 정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엔트로피(무질서도)의 개념이 도입되기도 한다.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수렴되어 상호간의 조화로운 조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화 상대들 사이에 사유의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증가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 표현들의 추론 역할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반성을 통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제안하는 의사소통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의미 불안정성 문제와 그것이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포도와 르포어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자. 애초에 귀류법적인 논증은 이렇게 전개되었다.

의미는 추론 역할이고→따라서 의미는 불안정하며→따라서 의사소통은 불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므로→따라서 의미는 추론 역할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 따르면 의미가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소통이 의미를 생성하며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의 초점은 의사소통 즉 언어 사용자들 상호간의 역동적인 추론 활동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데 있게 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포도와 르포어의 비판은 표상주의 의미 이론의 관점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만 의미 있게 주장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언어 표현의 의미는 곧 그것의 사용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전복적인 주장의 의의를 계승하여 화용론이 의미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화용론에 의미론이 부합해야 함을 주장하는 브랜덤의 관점

28) 같은 책 26쪽.

을 수용한다면 이들의 비판은 전혀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브랜덤이 제안하는 일종의 수렴형 의사소통 모형에서는 의미가 어떻게 든, 적어도 어느 정도는, 확정적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애초부터 성립하기가 어렵다. 사실, 의미가 고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추론주의 의미론에서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수용하기 어려운 관점이다. 잘 알려진 소위 ‘박물관 신화’가 말해주듯이 의미란 박물관 유물들에 붙어 있는 딱지처럼 그렇게 한 번 고정된 채로 변화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보다 조금 더 유연한 시각에서 의미 불안정성의 문제를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추론 역할 의미론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지간한 수준의 확정성 또는 고정성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라면 의미란 너무 연약하고 유통 기한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하루살이 같은 것이 아닐까? 언어 사용자에게 새로운 믿음이 추가될 때마다 기존의 추론 관계가 호소할 수 있는 믿음들의 목록이 변화될 터이고, 그런 목록이란 시시때때로 갱신될 것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 표현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시시때때로 변화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목록의 변화로 인해서 추론적 유의미성이 바뀔 수 있는 잠재성을 갖게 된다는 것과 추론적 유의미성이 실제로 바뀐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엄밀히 말해서, ‘2018년에 남북한 사이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라는 새로운 믿음이 추가되어도, 기존에 승인되던 ‘이것이 갈색 소라면, 이것은 동물이다’라는 ‘갈색 소’의 추론 역할과 관련된 추론적 유의미성에 실제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변화하고 확정되는 과정은 새로운 믿음이 추가될 때마다 그저 기계적으로 자동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대자들이 실제로 상호간에 찬동하는 믿음들과 그런 믿음에 대해 갖고 있는 추론적 근거로서의 주장 권한에 대해 보증과 승인의 규범적 태도를 취하면서 각각의 추론 관계들을 상호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중

적으로 전체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브랜덤의 추론 역할 의미론은 의미론적인 내용이 이러한 사회적 실천을 통해 결정된다는 측면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의미가 그리 ‘쉽게’ 변할 수 없는 모종의 의미 안정성을 획득한다고 말할 수 있다.²⁹⁾ 따라서 의사소통 중에 확인되는 추론 역할들이 개념에 내용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의미 불안정성은 불가피한 귀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불안정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미 구성적인 별도의 추론들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포도와 르포어가 요구하는 추론 역할의 합성성 문제에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의미 이론의 적절성 기준으로 의미의 합성성 기준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답변일 것이다. 그러나 브랜덤이 이런 노선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의미에 관한 전체론적인 기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문장들 간의 관계인 추론 관계를 근본적인 의미 구성 요소로 간주하면서도 하위문장적인 구문론적 범주들의 도입과 소위 대체추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미의 합성성 기준에 대한 납득 가능한 충족 가능성을 추론주의 의미론 내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에 대한 평가는 본 논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여기서 자세히 논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29) 실제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에서 의미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어떤 주장에 대한 찬동 권한이 갖고 있는 ‘기본 값과 도전(default and challenge)의 구조’이다. 의무적 점수기록의 모형에서 대화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찬동적 주장에 대하여 그에 대한 찬동의 권한을 기본 값으로 할당한다. 그리고 그러한 찬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 주장을 내놓은 사람은 그러한 권한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을 의미론적 내용의 문제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새로운 믿음의 추가로 인해 잠재적인 의미 변화의 여지가 발생했지만, 실제로 의미의 변화는 의무적 점수기록표에 체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대화 참가자들이 기존의 의미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기존에 할당된 의미론적 내용은 기본 값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브랜덤의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사회적인 전체론의 성격을 띠는 것은 오히려 기존 의미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셈이다.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새로운 모형과 그에 따른 의미 불안정성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포도와 르포어가 만족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 합성성의 개념이 너무 강한 것이라는 점만큼은 지적해야 할 것이다. 문장의 의미가 그것의 구성 요소들에 의미에 의존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들은 체계적인(실제로는 기계적인) 의존성 내지 의미를 의존하기 위한 완전한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개념이 확정적인 내용을 갖거나 확정적인 적용 조건을 가져야만 실제로 언어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표상주의적인 사고의 발로이다. 의미의 합성이라는 것이 마치 수학적인 계산이 이루어지듯 의미를 체계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이라는 생각만 포기한다면, 추론 역할 의미론에서도 의미의 합성적 성질을 설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5. 나가는 말

잘 알려져 있듯이, 언어 표현의 의미가 그것의 사용이라고 본 비트겐슈타인이 도달한 지점은 언어의 의미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체계적인 의미 이론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런 의미 사용이론의 노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브랜덤이 제안하는 추론주의 의미론은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 대한 이런 회의적인 시각에 도전한 결과물 중 하나이다. 포도와 르포어는 이에 대해 추론 역할 의미론이 필연적으로 의미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실제 현상과는 다르게 의사소통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병덕 교수는 이런 비판에 대해 의미 구성적인 추론을 분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으로 이른바 반사실적 강건성 개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런 식

으로 추론주의 의미 이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실제로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추론주의 의미 이론이 제안하는 의미 생성의 원천으로서 의사소통 과정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러한 비판을 벗어나는 합당한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 이병덕 (2004) 「의미 전체론과 의미 불안정성 문제에 관하여」, 『논리 연구』, 7집 2호, (한국논리학회)
- _____ (2017)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성범 (2015) 『소통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 Brandom, R. (1994) *Making it Explicit: Reasoning, Representing & Discursive Commitment*, (Harvard Univ. Press)
- _____ (2000) *Articulating Reasons: An Introduction to Inferentialism* (Harvard Univ. Press)
- Davidson, D.(1966, 2001) “Theories of Meaning and Learnable Languages” in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New York, Clarendon Press)
- Devitt, M.(1996) *Coming to our Senses: A Naturalistic Program for Semantic Localism* (Cambridge Univ. Press)
- Fodor, J. & Lepore, E.(1991) “Why Meaning (Probably) Isn’t Conceptual Role” in *The Compositionality Papers* (2002, Clarendon Press, Oxford)
- _____ (1996) “Brandom’s Burden” in *The Compositionality Papers* (2002, Clarendon Press, Oxford)
- _____ (2007) “Brandom Beleaguered” in *Reading Brandoms* ed. Weiss, B & Wanderer, J. (2010, Routledge)
- Lepore, E. & Ludwig, K (2007) *Donald Davidson’s Truth-Theoretic Semantics* (Oxford Univ. Press)
- Wanderer, J. (2008) *Robert Brandom* (McGill-Queen’s)

Does the distinction of meaning-constitute inferences solve the semantic instability problem of inferential semantics?

Suk, Kiyong (Sogang Univ.)

Jerry Fodor and Ernest Lepore argue that conceptual role semantics can not distinguish between meaning-constitute inferences and non meaning-constitute ones, so we can not explain semantic compositionality that we expect from appropriate semantic theories. They also point out that conceptual role semantics inevitably leads to semantic instability. Lee Byeong-deok, a proponent of inferentialist semantics, claims to be able to escape the criticism using Wilfred Sellars's concept of counterfactual robustness. I do not agree with the claim that the concept of counterfactual robustness can solve the problem raised. Instead, I argue that the transformation of the viewpoint of communication based on the Inferential theory of meaning is the right way to deal with this problem.

Key words: inference, inferential role, compositionality, semantic instability, counterfactual robustness

석기용 E-mail: syartzoyd@gmail.com

투 고 일	2018년 10월 03일
심 사 일	2018년 11월 4일
계재확정	2018년 11월 25일